



지난 11일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2025년 국제잠수함과정 수료식에서 수료생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부대 제공

세계 최고 디젤 잠수함 운용 노하우 해외에 알렸다

해군잠수함사, 국제잠수함과정 수료식

해군잠수함사령부(잠수함사)가 베트남·콜롬비아·싱가포르·필리핀 등 10개국 외국 해군 장병들에게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의 선진 기술과 훈련체계를 알렸다.

잠수함사는 지난 11일 “909교육훈련전대에서 ‘2025년 국제잠수함과정(ISETP)’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잠수함과정은 디젤 잠수함을 운용 중이거나 도입을 준비 중인 우방국 해군 장병

베트남·콜롬비아·싱가포르 등 10개국 우리 해군 전술·생존 노하우 등 전수 2013년 개설 후 13개국 109명 수료 “체계적 훈련 시스템 전파 큰 자부심”

들을 대상으로 우리 해군의 우수한 잠수함 운용 기술과 전술, 생존 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군사 협력 교육과정이다. 2013년 최초 개설 후 현재까지 13개국 109명이 수료했다.

10개국 외국 해군 장병 14명은 지난 5월 19일 입교 후 8주 동안 잠수함사의 훈련체계를 기반으로 △해양학·수중음향학 등 이론 교육 △전술·조종훈련 △소화방수훈련 등 교육과 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이 중 케냐·페루·오만은 올해 처음으로 참가해 한국 해군과의 협력관계를 새롭게 구축했다.

잠수함사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잠수함, 잠수함 구조함 등 해군 함정과 방위 산업시설 견학을 지원해 대한민국 해군의 첨단 전력과 국산 방산기술의 우수성을 소개

하는 등 국방외교와 방산 협력 강화에도 힘썼다.

김영창(전문군무경력관 가군) 국제잠수함과정 담임교관은 “국제잠수함과정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 운용국가인 대한민국 해군의 체계적인 교육 훈련 시스템을 전 세계 해군을 대상으로 알릴 수 있어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잠수함 부대의 역사와 전통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연 기자

“대한민국 해군잠수함사령부의 체계적인 훈련, 세심한 유지관리, 강력한 안전 문화와 작전 수행의 우수성에 감탄했습니다.”

박탕 마리엘 블레스 필리핀 해군 소위는 잠수함사의 올해 국제잠수함과정에 유일한 여군으로 참여했다. 잠수함 전력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필리핀 해군의 일원으로서 잠수함에 관한 기초지식을 배우고 경험을 쌓았다.

대한민국은 여군 승조원을 잠수함에 배치하고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박탕 소위는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이었던 잠수함 부대에 여군을 성공적으로 통합한 우리 해군이 좋은 본

“‘성별 통합 해군 문화’ 감탄 작전 수행 우수성도 엄지 척”

박탕 마리엘 블레스 필리핀 해군 소위

보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잠수함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도 상호 존중과 팀워크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것.

박탕 소위는 “여군 승조원들이 (남군과) 동일한 훈련, 책임, 기대치를 갖고 잠수함 운용에 완전히 참여하고

남성 중심 벗어난 문화 좋은 본보기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팀워크 빛나 필리핀 해군과 파트너십 계속되길

있었다”며 “생활공간, 체력훈련, 작업공간 등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가 여성 통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잘 설계돼 있던 점에 눈에 띄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해군은 다양성이 작전 효과성을 강화하는 요소임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고자 진지한 노력을 하

고 있었다”며 “우리 필리핀 해군도 한국의 사례처럼 성별 통합을 통해 현대적이고 전문적인 해군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필리핀 해군은 국제잠수함과정 초기부터 꾸준히 교육생을 참가시켜 왔다. 교육생들은 잠수함사의 시뮬레이터 훈련과 실제 잠수함을 체험하며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익힌다.

박탕 소위는 국제잠수함과정을 수료한 소감과 바람을 함께 전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이번 과정은 저에게 수중 작전과 한국 해군의 문화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심어줬습니다. 기술뿐 아니라 강력하고 전문적인 해군 문화를 만들어 가는 한국 해군의 모습에서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연합 훈련, 기술교류, 심지어 미래의 잠수함 공동 개발이나 도입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필리핀 해군의 파트너십이 계속 성장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수연 기자

